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"우리의 행위는 **언제나 상황과 object에 관한 것이고 상황과 object로부터의 파생이고, 상황과 object로 향하는 것이다.**

–John Dewey (Experience and Nature 중에서)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실제로 실험을 위해 유치원에 갔을 때
- 실험자로서 유치원의 아이들이 있는 방 근처에 앉아 있으면
- [00ちゃん　今日は00先生がきたから実験にのってあげてください」라고 말하고 별실로 데리고 간다.
- 아이는 아주 진지한 얼굴을 하고 따라 온다.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
- 「今日はね、ママはいないのよ」라고 갑자기 말을 꺼내곤 한다.
- 그것은 일단 알았으니까 "여기에 사탕이 4개 있다고 하자"
- 그러면 아이는
- 「今日、お父ちゃん遅いんだって」
- 그러면 실험자는 일단 응 그래?라고 반응을 보이다가도 곧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한다.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실험자는 [그러면 시작합니다. 여기에 사탕이 이렇게 있습니다]
- [자 봐라 이렇게 각각 두는데 “어느 쪽이 많나요?]라고 말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똑같은 양의 구슬이 놓여져 있으니까 [똑같은 것]은 당연한 것이다.
-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“똑같다’라고 대답을 한다.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[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펼칩니다”라고 한 쪽 구슬을 간격을 넓히면서 펼치기 시작한다]
- [어떤가요?라고 실험자가 질문을 하면]
- 아이는 “똑같습니다”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실험자의 얼굴을 보니까 실험자는 뭔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.
- 첫 번째는 [똑같습니다]라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말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“똑같습니다”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실험자가 조금 전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다.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그러니까 아이는 “이래서는 안되겠구나”라는 생각이 들어서 [역시 달라요]라고 말을 한다.
- 그러니까 실험자(아이한테는 교사로서 해석이 될 수도 있죠)는 빙긋이 웃는다.
- [어떻게 다르니?]라고 다시 물으면
- 아이는 [이쪽이 저쪽보다 많아 졌다고 생각해요]라고 말하고 실험자는「え―」라고 한다.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이러한 실험자와 아이의 대화를 분석해 보면
- 아이는 실험자와 대화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- 모처럼 외부에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즐겁고 재미있게 자신의 이야기도 하면서 그 선생님과 친해지고 싶은 것이다.
- 어쩌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이런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관심 밖의 일일 수도 있다.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언어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
- 똑같은 것을 두 번 질문을 받게 되면 질문자가 응답자의 이전의 질문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거나 뭔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있다.
- 그런데 Piaget선생님은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하지 않으면 아이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법칙을 오래 전에 만들었다.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그래서 반복해서 실험자는 아이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.
- 그래서 일관되게 대답한 아이만이 보존개념이 있는 아이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.
- 그런데 실험자가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?
- 아이의 경우는 성인과 대화의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똑같은 질문을 두 번 받으면 자신의 답이 뭔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자신의 대답을 번복한 것은 아닐까?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
-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질문을 한다는 것은 “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즉 정보를 구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물을 이유가 없다”
- “혹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물을 이유가 없다 그래도 묻는 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”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그러한 것들도 아이는 어른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
-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서
- 잘 모르겠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실은 다른 대답을 하였다고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?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그래서 그런 관점에 서서
- Classic한 실험 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게 된다.
- 예를 들면 물을 일부러 쏟아서 [앗 어쩌지!]라고 말하든지
- 혹은 누군가가 실험을 하고 있는 도중에 들어와서 [선생님 전화가 왔어요!]라고 말하면 그 선생님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을 데리러 온 다른 선생님이 [어 이거 똑같은 거니?]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된다.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그러면 아이는 [똑같아요]라고 제대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다.
- 자 그러면 유아는 [수의 보존]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?
- 즉 “질문을 받는다”는 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의미를 제대로 묻고 있다는 것을 아동이 알면 그것은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?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해서 전통적인 Piaget의 관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이 점점 밝혀지게 되어서
- 아이는 언제나 상황에 응답하려는 존재이구나.
- 즉 그 공간에서 아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상황을 제대로 선생님 혹은 실험자와 함께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.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아이의 발달을 본다고 할 때
- 보통의 우리의 관점이 아이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성장해 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(전통적인 발달심리학의 관점)
- 그렇게 보기 보다는 아동이라는 존재는 “정말로 열심히 상황에 대답을 하려고 하고 상황 속에서 살려고 한다”라고 보면 어떨까?
- 상황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사고부터 손의 움직임, 손가락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실은 커다란 맥락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아이의 행위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이다.

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

- 이러한 것은 아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 혹은 발달이라는 것을 볼 때 실은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.
-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아이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.